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42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5년 12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12 December

조부모의 황혼육아, 그 실태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다¹⁾

이윤진 연구위원

I. 조부모 황혼육아의 현주소는?

조부모는 영아 자녀의 바람직한 대리양육자 1순위지만, 전국 규모의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실태조사가 미흡했고, 정책적으로도 면밀하게 다룬 적이 거의 없음.

- 조부모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로 인식되어 있음.
만 2세 미만의 어린 자녀일수록 시설보육보다는 개별양육을, 개별양육에서도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보다는 혈연 관계의 조부모를 더 신뢰함.²⁾
- 시설중심의 교육·보육정책과 아이돌보미와 같은 공식적인 개별양육정책이 병행 실시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비공식적인 양육지원책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음.
특히, 조부모는 맞벌이 가구의 절대적인 양육지원자임. 맞벌이 가구의 조부모 및 친인척의 이용은 63.6%로 아이돌보미(5.0%), 가정보육사 또는 베이비시터(5.4%)보다 훨씬 높음.³⁾
- 최근 호주에서는 손자녀 양육을 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일하는 세대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3세대 동거' 지원을 발표하는 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⁴⁾
-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단위의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실태를 알 수 있는 모집단 자료가 부재함. 본 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속에서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 가구의 모집단 틀이 없어서 '2015년 0-5세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를 표본추출 틀로 사용했으며,⁵⁾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일반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함.

전국 단위의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부모(대응표 집) 500가구(1,000명)와 일반 국민 의견조사(1,000명)를 실시함.

1) 본고는 2015년에 이윤진·권미경·김승진이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의 연구결과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임.
2) 2009년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참조(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지, 2009: 122;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 2012: 85).
3) 유해미·배윤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87.
4) 연합뉴스(2015년 11월 25일). 일본, 육아부담 경감위해 '3세대 동거' 지원
5) '2015년 0-5세 주민등록인구통계'는 '3세대+4세대 이상 가구수' 및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유사함.

II.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가구 특성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은 30대의 맞벌이 가정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음.

조부모 본인 의지보다는 자녀의 부탁으로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었으며, 이를 수락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하게 도와주려고'임.

- 본 조사에 참여한 조부모의 평균 연령은 60.45세이며 78.4%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84.8%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함.

-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은 30대의 맞벌이 가정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음.

맞벌이 가정이 90.2%로 외벌이 가정 7.2%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맞벌이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699만원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59.2%이며 사무직 종사자가 61.2%로 나타나 전형적인 중산층 가구의 특성을 보임.

이들 맞벌이 가정 내 자녀 주양육자(94.2%가 모)는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18시 퇴근, 주 5일 근무의 사무직이 주를 이룸.

-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된 동기는 본인의 '자발적 양육'(24.0%) 보다는 '자녀의 부탁에 의한 비자발적 양육'(76.0%)이 훨씬 더 많았음.

비자발적이지만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하게 도와주려고'임.

자녀 입장에서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32.2%)',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서(31.6%)'가 비슷하게 나옴.

- 대부분의(78.6%) 조부모는 자녀와 비동거하면서 손자녀 양육을 함.

자녀와 같이 살지는 않지만 도보 또는 교통편 이용 시 약 17.5분(편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조부모가 자녀의 집으로(또는 자녀가 조부모의 집으로)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음.

조부모는 주로 자녀와 비동거하면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손자녀 양육을 함.

III.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현황

외조모가 가장 많이 돌보며 돌보는 손자녀 수는 평균 1.15명임. 해당 손자녀의 양육기간은 평균 21.0개월로,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은 장기간의 지속성을 띠는 특성을 지님.

-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는 조모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조모 중에서도 외조모가 절반 이상(56.8%)을 차지함(표 1 참조).

양육 중인 평균 손자녀 수는 1.15명, 평균 연령은 28.8개월이며 손자녀가 생후 7.78개월부터 양육하기 시작하여 평균양육기간은 21.0개월로 집계됨.

- 조부모 손자녀 양육은 신생아 때부터 시작되며 장기간의 지속성을 띠는 특성을 지님.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주당 5.25일, 42.53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맞먹는 노동 강도임. 이 때 자녀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49.8%이며 나머지는 받더라도 비정기적으로 받거나(27.8%) 받지 않는(22.4%)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월 평균 양육비는 57.21만원으로, 이는 2015년 최저 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임(일일 8시간 주 5일 월 4주 근무 기준으로 2015년 최저 시급 5,580원을 단순히 적용하면, 월 892,800원임).

양육비를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자녀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됐으면 해서(52.7%)'임.

조부모의 양육시간은 평균 주당 5.25일, 42.53시간이며 자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 월 평균 양육비는 약 57.21만원으로 집계됨.

〈표 1〉 조부모 손자녀 양육 관련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계	평균(표준편차)
양육 손자녀와의 관계			
외할머니(외조모)	56.8(284)		
친할머니(친조모)	38.8(194)		
친할아버지(친조부)	1.6(8)	100.0(500)	-
외할아버지(외조부)	1.4(7)		
기타 친지	1.4(7)		
현재 양육 손자녀 수			
1명	87.0(435)		
2명	11.4(57)	100.0(500)	1.15명(0.396)
3명	1.6(8)		
손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하	20.4(102)		
생후 13~24개월 이하	26.8(134)		
생후 25~36개월 이하	18.4(92)	100.0(500)	생후28.8개월(16.081)
생후 37~48개월 이하	19.8(99)		
생후 49개월 이상	14.6(73)		
손자녀 양육 시작 시기			
최소	생후 0개월	100.0(500)	7.78개월(8.518)
최대	생후 52개월		
손자녀 양육 기간			
6개월 이하	17.8(89)		
7~12개월	20.0(100)		
12~24개월	24.8(124)	100.0(500)	21.0개월
25~36개월	19.4(97)		
36개월 이상	18.0(90)		

주: 손자녀 양육 기간의 평균은 손자녀 평균 연령에서 손자녀 평균 양육 시작 시기를 뺀 수치임.

〈표 2〉 조부모 손자녀 양육 현황

평균 주당 양육 일수	평균 주당 양육시간	자녀로부터 받는 양육비 현황	
		정기적으로 받음	월 평균 양육비
5.25일	42.53시간	49.8%	57.21만원

- 응답한 조부모의 52.8%가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 인력(예: 배우자, 가사도우미 등)은 ‘없다’고 응답함. 기저귀 갈기, 우유/식사 및 간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등의 양육활동을 하면서 집안청소하기, 빨래하기, 성인자녀 식사준비 등의 가사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활동보다 가사일을 더 힘들어 함.

-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은 자녀의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조부모의 양육지원은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속 해주는 주요 기제라 하겠음.

〈표 3〉 조부모 손자녀 양육 도움 정도에 대한 조부모와 자녀의 인식 비교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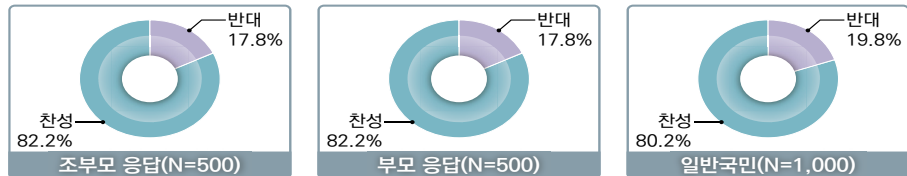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 됨	계	평균
조부모	0.4	7.2	48.0	44.4	100.0(500)	3.36
자녀	0.2	3.2	26.2	70.4	100.0(500)	3.67

IV.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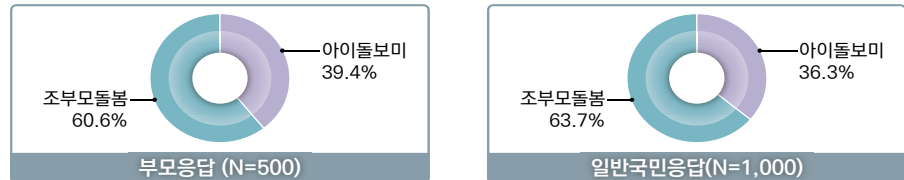
조부모 손자녀 양육 수당에 대한 의견조사와 아이돌보미와 조부모 중에서 선호도를 묻는 의견조사 모두, 조부모·부모·일반국민이 동일한 결과가 나옴. 세 집단 모두 양육 수당은 80% 이상 찬성이며, 60% 이상이 조부모를 더 선호함.

- 조부모 손자녀 양육 수당 지원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해당 가구와 일반 국민에게 알아본 결과, 조부모와 부모 모두 82.2%, 일반 국민은 80.2%가 찬성한다고 응답함(그림 1 참조).
- 정부가 파견하는 비혈연 양육도우미인 아이돌보미와 조부모 중에서 둘 다 지원 조건이 같다면, 부모와 일반 국민 모두 조부모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조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했다는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함.



[그림 1] 조부모 양육 수당 정책 찬반 여부



[그림 2] 아이돌보미와 조부모돌봄 중 선호대상

V.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응방안으로 조부모-부모-손자녀 3세대를 아우르는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제안함.

-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오히려 조부모의 황혼육아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음.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보다는 정책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음.

조부모 손자녀 양육정책 수립 시,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서”의 이유로 조부모에게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조부모는 “비자발적으로” 맡는 경우가 많았다는 조사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음.

- 이에 아이돌보미 사업 내의 조부모 돌봄 양성과정 추가 설계를 제안

부모가 아이돌보미와 조부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조부모가 동일하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

단, 혈연관계의 특성상 부정수급이나 재정누수가 우려되므로 조부모 돌봄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 포함)으로 제한하여 지원함.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조부모 어드바이저’를 배치, 수당의 관리 감독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지원을 총괄적으로 지원함.

‘조부모 어드바이저’는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조부모 대상으로 양성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함.

- 조부모 및 조부모-부모 세대 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세대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양육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프로그램 뿐 아니라 조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조부모-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할 것을 제안함.³⁾

이윤진 연구위원 leeyunjin@kicce.re.kr